濟州市의 人口成長에 관한 考察

宋 成 大

目 次

Ⅰ. 序 論
Ⅱ. 人口增加
Ⅲ. 人口動態
Ⅳ. 人口構成
Ⅴ. 人口分布와 密度
Ⅵ. 結 論

Ⅰ. 序 論

地域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地理學에 있어서 어느 한 地域의 人口特徵을 究明함은 곧 地域研究의 基本이 된다.

Hoon이 말한 바와 같이 地理學은 근본적으로 地表上의 不均等한 人口分布를 解明해야되고 또한 地誌의 組織에서 地域性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人文地理的 要素로서의 人口는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1]

地域의 人口成長 內容은 그 地域의 총체적 成長이나 停滯性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質的 特性까지 파악할 수 있는 指標가 되므로 이 人口現象에 대한 研究는 地理學외에 社會學·經濟學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1960年代이후 시작된 工業化와 國土開發에 대한 計劃과 施行은 人口成長이나 分布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다.[2] 그것은 1955年부터 나타난 出產붐에 의한 人口의 急增과 아울러 1960年이후 人口의 脫農村時代를 맞이하면서 한정된 都市의 空間에 쇄도하여 過密人口를 초래,人口의 再編成이 要求된 결과이다.[3]

---

1) 岸本 實,「人文地理學」東京, 大明堂, 1980, pp. 12－20.
Huw R Jones, *A Population Geography*, London, Harper & Row Ltd, 1981, pp. 7－13.

2) 宋丙洛編,「韓國의 國土·都市·環境」,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 1961－108.

3) 上揭書, pp. 217－222.

濟州市는 濟州道라는 地方의 鄕都로서 다른 地方의 中小都市와는 달리 不斷한 人口增加에 의한 都市發展이 이루어져 왔고 여기에다 濟州市는 觀光都市的 機能이 첨가되어 있다는 데에서 독특한 地域이 되고 있다.[1] 따라서 本稿에서는 他地方中小都市와 다른 濟州市의 人口現象은 무엇이며 또한 觀光都市가 갖는 人口地理學的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것은 곧 濟州市의 成長過程을 究明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資料로 하여 장래의 효율적인 都市發展이 어떤것인가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本 硏究의 時間的 硏究範圍는 資料의 制約으로 1955年에서 1983年 現在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필요와 때에 따라서는 그 以前의 時期의 資料도 검토하였다.

本硏究가 人口의 地域的인 解明에 촛점을 두고 있으므로 人口現象에 관련된 諸要素인 人口成長, 人口構成, 人口動態, 人口分布 및 密度 등 전반에 걸쳐서 그 時間的 變化와 特性을 파악할 것이다.

Ⅱ. 人口增加

1. 市昇格以前

1789年 正祖13年의 戶口總數에 의하면 濟州의 人口는 6,761人으로 都市的 聚落(5,000人이상)中에서 南韓地域만을 기준할 때는 人口規模面에서 10大都市의 하나에 속해 있어 全南의 光州(5,525人), 忠北의 淸州(5,436人), 江原의 春川(2,825人)등 보다도 훨씬 큰 都會地를 이루고 있었다.[5]

이와같이 일찍부터 濟州는 多數의 人口가 모여 地方의 鄕都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당시 濟州島의 都市化率(人口面에서 본)은 17.0%였다.

1925年 日政時의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簡易國勢調査에는 濟州의 總人口數는 39,030人으로 이것은 1789年 이후 136年間에 32,269人이 불어난 것이 되며 그 年平均增加率을 推算하면 약 1.8%로서 전형적인 人口變遷의 第1段階 多産多死型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解放 직전까지 계속되었는바 1944年의 人口는 46,377人으로 1925年을 기준하여 19年동안 7,347人이 증가한 셈이되고 年平均增加率은 0.8%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30年의 人口가 39,380人이고 5年後인 1935年에는 38,290人으로 동기간은 人口가 오히려 1.9%나 감소하여 解放以前의 期間中 유일하게 人口減少의 時期를 맞는다. 이것은 社會的 人口減少에 기인하는 것으로 1920年代부터 日本은 自國의 近代化 즉 工業發展을 도모하기위해 韓半島 특히 濟州島의 근면하고 성실한 勞動力 확보에 혈안이 되어 계획적으로 住民의 出他를 유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7] 그후 1944年 바로 解放 직전의 人口調査結果는 46,377人으로 1935年의 38,290人에 비해 21%의 增가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年平均增加率로는 5.2%가 되는 것으로 同期間은 太平洋戰爭의 末期로 在日濟州民들이 政開에 의한

4) 宋成大, 觀光地域의 都市化硏究.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大學院, 1980, pp. 33－37.
5) 孫禎睦, 「朝鮮時代都市社會硏究」, 一志社, 1977, pp. 207－211.
6) 洪慶姬, "韓國의 都市化", 「慶北論文集」, Vol. 6, 慶北大學校, p. 5.
7) 柳田一二, "濟州島の人口移動に關する地理的硏究"「地理學評論」11－1, 1935, pp. 85－104.

歸國이 상당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朝鮮末期부터 8·15解放까지 濟州市의 人口增減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南韓10大都市의 하나였던 濟州市로 하여금 韓日合併後 日政時에는 오히려 人口가 停滯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日帝가 韓半島를 그들의 병참기지와 식량공급기지로 利用하고자 內陸交通都市 및 港市의 개발을 촉진하고 아울러 日帝後半期에 이르러서는 鑛工業都市의 개발정책이 이루어진 결과이다.[8] 따라서 朝鮮末期에 濟州보다 훨씬 人口規模가 뒤져있던 光州를 비롯한 大田, 群山, 木浦, 馬山등 南韓의 主要都市들이 급성장하게 되어 1942년에 濟州는 10大都市에서 밀려나 南韓의 83個都市(邑포함)중에서 12位가 된다.

8·15解放後 人口增加는 계속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47年에는 人口數 5萬을 넘게되고 1951年에는 71,904人으로 急增하는데 이것은 6·25動亂으로 인한 避亂民과 四·三事件에 의한 濟州島內의 中山間내지는 農村에서의 疎開民의 流入에 의한 일시적 社會增加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流入民에 의한 人口增加는 社會가 점차 안정되면서 원래의 居住地로 대다수가 복귀하여 1955年까지는 항상적인 人口增減을 하게 된다.(表 1參照).

2. 市昇格以後

1955年은 濟州市가 邑에서 市로 昇格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해로 당시 人口는 59,662人으로 전국 25個市에 22位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것은 日政때의 都市政策의 영향이 남아 있었던것도 있지만 6·25動亂으로 越南한 北韓同胞와 또한 南韓農村地域에서의 戰災民發生등이 國土內에서 人口再編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의 移動民들이 주로 都市로 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土의 邊境에 위치한 濟州는 人口의 吸引力이 미약하여 1955~1959年 사이의 人口增加率은 年平均 1.4%로 地域成長의 停滯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濟州道內에서 본 都市化率도 1955年의 20.6%에서 1959年에는 23.4%로 높아졌으나 그 속도는 완만하였다.

그러나 1960年에 이르면서 상황은 달라져 人口가 急增하는데, 1960年의 市人口는 68,090人으로 되어 그 전해인 1959年에 비해 무려 7.8%의 高增을 나타낸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1969年에는 10萬人口에 가까운 9,7681人이 되어 10年間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은 4.4%로 기록적인 증가세를 갖게된다.

이러한 높은 增加率은 1960年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都市成長패턴이 日帝때의 그것을 탈피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1960년대 시작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立案과 施行에 의한 새로운 工業都市의 成長과 지방중소도시에서 大都市로의 人口流出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문이다.

이와같이 전국의 地方中小都市의 人口減少 내지는 停滯와 달리 濟州市는 非工業都市임에도 불구하고 人口增加가 현저한 것은 經濟開發에 따른 전국민의 可處分所得과 可處分時間의 增大 그리고 全國土의 都市化에 의한 居住環境의 變化가 觀光需要의 急增을 가져오게 되어 이런 現象은 결국 濟

8) 鄭璋鎬, 「新編韓國地理」 祐成文化社, 1980, p. 189.

〈表 1〉 濟州市 年度別 人口現況

區分 / 年度別	家口數	人口數			年平均人口增加率	性比	家口當平均家族數	都市人口率
		計	男	女				
1925	8,979	39,030	18,113	20,917	*1.2	86.5	4.3	17.5
1930	9,436	39,380	18,210	21,170	0.1	86.0	4.1	18.9
1935	-	38,290	17,791	20,499	△0.5	86.7	—	18.4
1944	9,826	46,377	22,717	23,658	2.1	96.0	4.7	19.5
1955	11,709	59,662	26,786	32,876	2.2	81.4	5.0	20.8
1960	15,348	68,090	32,617	35,473	2.6	91.9	4.4	24.1
1966	18,497	87,569	42,795	44,774	4.2	95.5	4.7	26.0
1970	23,803	106,459	52,470	53,986	5.0	97.1	4.4	29.1
1975	30,140	135,189	66,539	68,650	4.8	96.9	4.4	32.8
1980	39,160	167,546	83,301	84,245	4.3	98.8	4.2	—
1983	45,930	188,518	92,888	95,636	4.0	97.1	4.1	—

資料 : 簡易國勢調査 結果表 (朝鮮總督府, 1925)
朝鮮國勢報告 (朝鮮總督府, 1930, 1935)
濟州統計年報 (濟州市, 各年度)

* : 1789年을 基準年度로 한 것임.

在觀光資源이 풍부한 濟州道로 하여금 觀光開發의 契機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濟州道觀光의 發着地이며 中樞都市인 濟州市는 활발한 건축 및 土木事業이 전개되고 觀光關聯產業도 병행하여 추진되어 많은 人口吸引力을 發生시켰을 뿐만 아니라 60년대 후반의 三南地方을 휩쓴 旱魃은 이 地方의 農民을 隣接開發成長地인 濟州로 人口를 流出시키게 되므로써 나타난 현상이다.[9]

1960년대의 이러한 人口의 社會增加와 함께 自然增加도 현전한 위에 死亡率의 低下로 人口變遷은 多產少死型이 되지만 70年代와 80年代初인 현재까지도 둔화되지 않고 계속된다. 그리하여 1970年度에 濟州는 10萬都市로 부상하고 1955年 市昇格 당시의 都市人口率 20.6%는 29.1%로 높아지고 全國都市人口順位에서도 1960年의 20位에서 18位로 올라간다.

이러한 지속적인 人口增加는 60年代는 물론 社會增加보다는 自然增加에 원인이 컸지만 70年代이후로는 社會增加가 自然增加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觀光產業의 發達에 기인한 것이 절대적이다.

1970年代의 人口增加內容을 살펴보면 1969年의 97,681人이였던 人口는 10年후인 1979年에는 160,981人으로 되어 기간에 62.2%나 증가한 셈이 되며 이것은 年平均增加率이 5.1%가 되는 것으로 同期間의 全國 年平均增加率인 1.8%와 대조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70年代의 높은 濟州의 人口增加率은 결국 日帝以後 계속 人口規模面에서 濟州를 앞서 가던 群山, 麗水, 裡里, 原州, 順川, 春川, 忠州, 慶州, 忠武 등을 뒤로 쳐지게 만들었으며 都市人口率도 1979年에는 35.2%로 높게 된다.

9) 姜相培, "濟州市의 人口에 대한 硏究", 「論文集」 第7輯, 濟州敎育大學, 1977, p. 7.

80年代 前半에 해당하는 현재도 일부工業都市를 제외한 全國의 地方都市에 비해서는 그 增加率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1983年의 총인구수는 188,518人으로 곧 20萬都市로 成長할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9年부터 1983年사이의 人口增加率이 70年代에 비해 다소 떨어진 4.1%(年平均增加率)이기는 하나 역시 同期間의 全國의 年平均增加率 1.6%와는 큰 差를 보여 당분간 人口增加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表 2 에서와 같이同期間의自然增加와 社會增加를 보았을때 自然增加率이 1.6%인데 반하여 社會增加率이 2.0%로 社會增加率이 0.4%가 높아 濟州市의 人口吸引力이 常存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Ⅲ. 人口動態

일반적으로 都市人口의 增加는 원래 出生과 死亡의 차이에서 오는 自然增加보다는 人口移動에 의한 轉入과 轉出의 차이에서 오는 社會增加에 의한 경우가 더 크다. 그리고 兩者의 比較에 의해서 그 都市가 農業的 要素가 많으냐 都市的 要素가 많으냐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都市의 發展이 停滯되어 있느냐 아니면 계속적이냐를 알아낼 수도 있게 되는 중요한 指標로서의 구실도 한다.[10]

그러므로 이에 대한 資料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資料가 충분히 수집될 수 없어 이의 硏究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수집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濟州市의 人口動態 파악을 위한 資料로서 自然增加에 대해서는 1961～1983年까지의 23年間만의 資料가 있으며, 社會增加에 대해서는 1969～1971年사이의 것과 1979～1983年 사이에 해당하는 것만이 있어 1969年 이전과 1972～1978年까지의 中間은 資料化되어 있지 못하다.

濟州市 人口의 自然增加를 먼저 보면 表2에서와 같이 1961～1966까지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은 2.4%로 同期間의 年平均 出生率은 3.2%, 年平均死亡率은 0.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1967～1970年까지 4年間의 年平均出生率은 4.0%, 年平均死亡率은 0.8%로 年平均死亡率은 前期間과 동일하나 年平均出生率은 前期間에 비해 0.8%가 더 높아져 결국 自然增加率은 3.1%로 高增加하게 된다. 이러한 自然增加의 急增現象은 全國과 비교할 때 특이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自然增加率이 1960年을 전환점으로 하여 下向勢를 보이는 것과 달리 濟州市 그보다 약 10年이나 뒤늦어져서 1970年에 이르러서야 自然增加率이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 低下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1年～1975年 사이의 5年間 年平均出生率은 2.8%, 年平均死亡率은 0.5%로 自然增加率이 2.3%로 둔화되었는데 기간에 死亡率이 前期間(1960年代후반)에 비해 0.3%가 낮아졌음에도 이러한 自然增加의 減少를 가져온 것은 出生率이 前期間에 비해 무려 1.2%나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人口의 自然增加의 감소추세는 그후 계속되어 1976～1980年사이에는 出生率에 있어서 前期間에 비해 0.3%가 낮은 2.8%를, 死亡率에 있어서는 前期間에 비해 오히려 0.2%가 높아져 0.7%를 보여 自然增加率은 2.1%가 되어 보다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10) 姜大玄, 「都市地理學」, 敎學社, 1976, p. 5.

〈表 2〉 人口의 自然增減

年度	自然增加(率)	出 生 (率)	死 亡 (率)
1961	3,464(5.0)	4,833(7.0)	1,369(2.0)
1962	1,282(1.8)	1,770(2.4)	488(0.6)
1963	2,298(2.9)	3,032(3.8)	734(0.9)
1964	1,259(1.5)	1,608(1.9)	349(0.4)
1965	1,231(1.4)	1,667(1.9)	436(0.5)
1966	1,667(1.9)	2,021(2.3)	354(0.4)
1967	2,504(2.8)	3,080(3.4)	576(0.6)
1968	1,815(1.9)	2,341(2.4)	526(0.5)
1969	5,633(5.8)	7,250(7.4)	1,617(1.6)
1970	2,331(2.2)	3,176(2.9)	845(0.7)
1971	2,840(2.6)	3,601(3.2)	761(0.6)
1972	1,242(1.1)	1,632(1.4)	390(0.3)
1973	3,139(2.7)	4,002(3.4)	863(0.7)
1974	2,888(2.3)	3,589(2.8)	701(0.5)
1975	3,643(2.7)	4,506(3.3)	863(0.6)
1976	4,129(3.0)	6,207(4.4)	2,078(1.4)
1977	1,921(1.3)	2,679(1.8)	758(0.5)
1978	1,959(1.2)	2,722(1.7)	763(0.5)
1979	2,588(1.6)	3,419(2.1)	831(0.5)
1980	3,168(1.9)	4,243(2.5)	1,075(0.6)
1981	2,953(1.7)	4,154(2.3)	1,201(0.6)
1982	2,878(1.6)	3,734(2.0)	856(0.4)
1983	3,114(1.6)	4,146(2.1)	1,032(0.5)

資料 : 濟州市 各年度 統計年報

1980年代의 초반에 해당되는 현재를 보면 出生率은 더욱 저하되어 2.0%를, 死亡率은 다소 감소된 0.5%를 보여 自然增加率은 1.5%로 오히려 전국의 平均値보다 약간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1.5%를 보여줘 濟州市 人口의 自然增加 특색은 보다 늦게 多産少死型에 이르렀으나 이번에는 보다 빨리 少産少死型의 段階에 돌입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한편 社會增加를 다음에 살펴보면 1969~1971年까지 3年間의 轉入人口는 25,371人으로 23,227人의 轉出人口에 비해 2,144人이 轉入超過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同期間의 年平均社會增加率이 0.7%로서 同期間의 年平均自然增加率 3.5%와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한 近代化過程의 農村型 人口成長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轉出入 人口를 性別로 보면 轉入은 性比가 118.2로 轉出의 性比 115.2와 함께 모두 男超를 이루고 있다. 또한 轉入對象地別로 보면 道內에서가 18,067人으로 전체

의 71.2%를 차지하고 있고 轉出에 있어서도 道內로의 轉出이 61.9%를 나타내어 濟州市의 轉出入 對象地域은 주로 道內의 農村地域이 절대적으로 多數가 되고 있다. 轉出入에 있어서 道外間의 關係를 보면 0.9%의 轉出超過를 하고 있어 道內에서는 人口吸入地로서의 位置를 가지나 道外間에 있어서는 근소하나마 人口送出地가 되고 있다.

다음에 1979年~1983年 사이의 5年間의 社會增減을 보면 매년 平均轉入人口는 35,898人, 轉出人口는 32,404人으로 人口數는 3,494人씩 增加하였고 增加率로 換算하면 2.0%로 1969~1971年사이의 期間보다 1.3%나 높은 것으로 同期間의 2.0%를 나타냈던 自然增加率과 똑 같은 값으로 自然增加와 社會增加가 均衡을 이루고 있다.

〈表 3〉 人口移動 狀況

區分	轉入			轉出			轉入			轉出		
年度	計	男	女	計	男	女	道內	道外	國外	道內	道外	國外
1969	4,770	2,518	2,252	5,437	2,943	2,494	3,216	1,552	2	3,148	2,289	—
1970	9,433	5,119	4,314	8,296	4,551	3,749	6,691	2,742	—	5,936	2,360	—
1971	11,168	6,111	5,057	9,494	5,093	4,401	8,160	3,008	2	6,633	2,861	—
1979	27,970	15,417	12,553	24,636	13,284	11,352	21,113	6,857	—	18,004	6,619	13
1980	35,309	18,585	16,724	31,569	16,730	14,839	26,689	8,615	5	23,634	7,916	16
1981	36,503	19,088	17,415	32,636	17,364	15,272	27,457	9,043	3	23,966	8,653	17
1982	36,513	18,996	17,517	33,762	17,725	16,037	27,747	8,766	—	24,565	9,150	47
1983	43,196	21,755	21,441	39,418	19,947	19,471	31,994	11,197	5	28,173	11,225	20

資料 : 濟州市 各年度 統計年報

그러나 1969~1971年사이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이 3.5%, 年平均社會增加率이 0.7%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濟州의 人口增加가 時間經過에 따라 社會增加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3參照).

한편 1980年代의 이와같은 社會增加에 있어서 男女別 轉出入狀況을 보면 轉入에 있어서는 性比가 109.5, 轉出은 127.4로 前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轉入人口中에는 女子가 많고 轉出에 있어서는 男子가 많음을 보여 後期에 올수록 女子의 數가 점증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1960年代부터 1970年 中半까지는 濟州市가 주로 都市的 基盤施設과 각종 都市設事業이 진행되고 또한 그 과정에 男子에 대한 勞動需要가 增加하여 왔는데 대해 1970年代後半 및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觀光施設과 觀光産業등의 發展이 써어비스업의 成長을 촉진시켜 이에 필요한 女子가 다수 轉入되었다고 사료된다.

轉出入을 對象地別로 보면 前期와 마찬가지로 轉入人口의 75.2%가 道內의 各地域이 되고 있으며, 轉出地 역시 道內가 73.0%로 대부분 道內間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道外間의 移動을 보면 동기간에 轉入率이 24.7%, 轉出率이 26.9%로서 道內間에 있어서 轉入超過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轉出超程을 보인다. 이로서 濟州市는 濟州道의 中心性을 强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道外人口를 흡수할만한 都市的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道外間의 移動은 주로 大都市와 아니면 인근의 農村地域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濟州市로의 人口送出地域은 全羅南道를 수위로 해서 서울, 부산順이며, 轉出地는 서울, 부산, 全羅南道順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70年代 이후로는 國外로의 轉出人口도 나타나 濟州市의 人口轉出入 對象地가 國內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特記할 만하다.

Ⅳ. 人口構成

1. 性別·年齡別

性別人口構成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는 性比를 가지고 行하는데 性比란 男子數와 女子數의 比率을 말하는 것으로서 女子 100人에 대한 男子의 數로서 表現한다. 즉, 性比가 100 이상이면 男超가 되며 100이하이면 女超가 되는데 어떤 社會에서나 出生時의 性比는 105로 이것은 女子 100人이 出生하는 것에 대해 男子는 105人이 出生 男子가 5人이 많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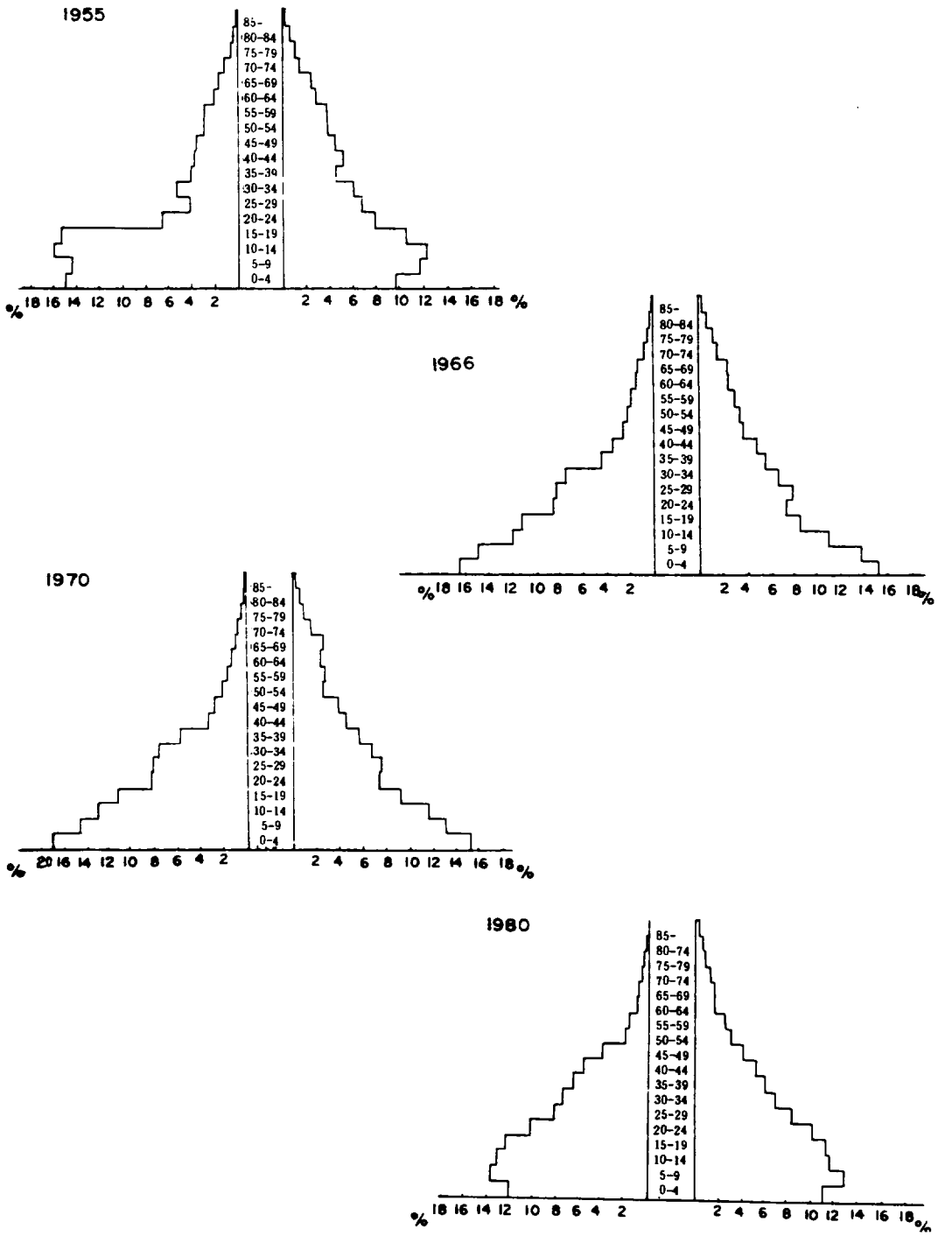
濟州市의 性比는 市昇格 당시(1955年) 85.5%로 매우 높은 女超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全國의 性比가 100으로서 男女가 균형을 이룬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 이런 원인은 전통적으로 本地域이 女超地域이라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너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림1 에서와 같이 20세에서 59세까지의 年齡層에서 男子人口의 構成比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1948年에서 1954年까지 계속된 4·3事件과 1950年에 발발한 6·25動亂등의 內亂과 戰爭에 本地域의 男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희생자가 많았다는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0~4세 사이의 性比가 또한 132.0으로 異常現象을 보이는 것은 出生申告時에 있어서 男兒選好思想이 그대로 반영되어지지 않았나 思料되는데 이러한 근거는 1966年의 10~19세에 해당하는 性比가 거의 정상상태를 보이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1966年에 와서 性比는 95.5로 性別人口構成에 있어서 比率은 10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自然增減에 의한 世代交替가 10年間이나마 다소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5세 이상의 年齡層에서 女超現象은 두드러지게 유지되고 있다.

1970年의 性比는 97.2로 1966年에 비해 보다 좁혀졌으며 出產의 增加로 年少年層人口가 增大되어 전형적인 피라미드型 人口構成을 보여준다.(그림 1參照). 이와같은 1970年까지의 農村的인 人口피라미드는 1980年에 와서 性比가 99.0으로 男女의 性別人口構成은 거의 均衡을 이루어 당시 全國의 性比 100.4와 비교할 때 性比에 의한 濟州市가 갖는 人口構成的 特性은 약화되어 정상적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다음에 年齡別人口構成은 性別人口構成과 마찬가지로 人口피라미드에 있어서 불규칙한 面이 많은데 1955年 年少人口는 戰爭과 內亂에 의해 出產力을 갖는 年齡層의 희생이 많았던 관계로 構成比가 낮은데 당시 年少人口는 全年齡層의 39.3%로 老年人口가 4.9%, 出產年齡人口가 55.7%로서

〈圖 1〉 人口 피라미드


1955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 18 16 14 12 10 8 6 4 2
2 4 6 8 10 12 14 16 18 %
1966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 18 16 14 12 10 8 6 4 2
2 4 6 8 10 12 14 16 18 %
1970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 20 16 14 12 10 8 6 4 2
2 4 6 8 10 12 14 16 18 %
1980
85-
80-7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 18 16 14 12 10 8 6 4 2
2 4 6 8 10 12 14 16 18 %

비교적 生產年齡人口의 構成比가 큰 셈이 된다. 따라서 당시의 年少人口指數가 70.6, 老年人口指數 8.8, 扶養人口指數 79.5로(表 4 參照) 다음 時期보다 그 構成相은 오히려 非正常的이기는 하더라도 先進的이었다. 그러나 1966年의 資料를 보면 이와달리 年少人口의 構成比는 41.1%로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生產年齡人口와 老年人口의 構成比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70年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出產붐이 1955年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것과는 달리 濟州市에 있어서는 그보다 약 10年후에야 그러한 出產붐이 도래하였다는 뜻으로 6·25動亂과 4·3事件에 희생된 年齡層은 구체적으로 전국의 平均齡보다 10세가 낮은 初期生產年齡層인 15~24세 사이가 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表 4〉 年齡別 人口構成

	年齡別構成				年齡別構成指數			
	總數	0-14	15-64	65 이상	年少人口指數	老年人口指數	扶養人口指數	老年化指數
1955	60,109 (100.0)	23,662 (39.3)	33,485 (55.7)	2,962 (4.9)	70.6	8.8	79.5	12.5
1966	89,369 (100.0)	36,769 (41.1)	48,554 (54.3)	4,046 (4.5)	75.7	8.3	84.0	11.0
1970	106,260 (100.0)	45,091 (42.4)	56,868 (53.5)	4,301 (4.0)	79.2	7.5	86.8	9.5
1980	167,474 (100.0)	62,326 (37.2)	99,304 (59.2)	5,844 (3.4)	62.7	5.8	68.6	9.3

資料: 各年度 濟州市統計年報

따라서 濟州市의 出產붐 期間인 1966年~1970年지의 年齡別人口構成의 變化는 年少人口數의 增加와 老年人口數의 相對的 減少로 특징지워 진다. 1970年의 年少人口構成比는 42.4로 1966年에 비해 1.3%가 高增한 대신에 65세 이상의 老年人口構成比는 4.0%로 1966年에 비해 0.5%가 감소한다. 1970年 年少人口構成比는 全國의 40.0%보다 2%가 높은 것이며 老年人口構成比는 相對的 減少를 했기 때문에 全國의 3.8%보다 0.2%가 더 높다. 그 결과 扶養人口指數도 1970年에는 극대가 되어 86.8가 되어 全國의 79.2보다 무려 7.6이 높게 나타나고 이것은 扶養對象者數가 그만큼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農村型 年齡構成內容은 1970年을 고비로 하여 都市型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1980年의 年齡別人口構成을 보면 年少人口가 37.2%, 生產年齡人口가 59.2%, 老年引口 3.4%로 그 構成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즉, 1980年은 1970年에 비해 年少人口가 2.9%가 낮아진 대신에 生產年齡人口는 5.7%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扶養人口指數도[11] 1970年의 86.8에서 1980年에는 68.6으로 내려와 무려 18.2의 指數値가 저하한다. 그러나 아직도 老年化指數가 한자리 숫자인 9.3에 머물러 완전한 先進都市型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11) 岸本 實(1980), 前揭書, pp. 63-67.

2. 産業別 人口構成

産業別人口構成은 어느 한 地域의 經濟發展程度는 물론 그 地域의 機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指標로서의 역할도 한다. 대체로 先進地域에서는 1次産業에 종사하는 人口가 10%내외, 2次産業에는 30%내외, 3次産業에 60%내외가 된다. 반면에 落後地域인 경우는 1次産業에 70%, 2次産業에 10%, 3次産業에 20%내외의 종사자를 갖는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落後地域인 開發途上國家의 都市들은 소위 假都市化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次産業에 從事하는 人口數가 가장 많은 構成比를 갖고 다음에 1次産業, 2次産業順이 되기도 한다.

表·5에서와 같이 市昇格當時인 1955年의 濟州市의 産業別人口構成을 보면 1次産業從事者가 77.8%, 2次産業인 경우는 7.8%, 3次産業에 있어서는 14.2%를 나타내어 名目上으로는 都市이면서 實質的으로는 전형적인 農村地域의 産業別人口構成相을 보여주고 있다.

〈表 5〉 産業別 人口構成(比)

區分 / 年度別	就 業 者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分類不能
1930	22,229(100.0)	18,578(83.6)	1,813(8.1)	1,838(8.3)	—
1955	20,056(100.0)	15,613(77.8)	1,555(7.8)	2,868(14.2)	—
1960	23,690(100.0)	15,879(67.0)	1,154(4.9)	6,557(27.7)	100(0.4)
1965	36,221(100.0)	23,729(65.6)	1,041(2.8)	11,457(31.6)	1,967(5.4)
1970	32,930(100.0)	15,040(45.7)	2,850(8.6)	15,040(31.3)	—
1975	47,191(100.0)	25,816(54.7)	2,776(5.8)	18,605(39.4)	—
1980	51,021(100.0)	23,328(45.7)	4,941(9.6)	22,752(44.5)	—
1983	54,683(100.0)	11,703(21.4)	3,979(7.3)	39,001(71.3)	—

資料 : 濟州都市再整備計劃 濟州市, 1976,
濟州市社會産業局

그러나 市昇格 15年後인 1970年에 이르러서 1次産業從事者의 構成比는 45.7%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대신에 3次産業從事者는 1955年의 2,868人에서 15,040人으로 增加하여 期間에 12,172人이 불어났고 그 增加率은 1955年을 基準하여 무려 424%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매년 28.2%씩 增加한 셈이 된다. 이와 반면에 同期間의 1次産業人口는 減少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지만 상당히 완만한 속도를 가져 그 年平均減少率은 0.2%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아 1970年 이전에는 濟州市가 市로는 昇格되었다 하더라도 産業別人口構成에 있어서 農村的 都市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단지 地方中心都市로서의 鄕都에 불과하여 基盤機能이 거의 없었던 것이 된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都市基盤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指標의 하나인 2次産業從事者 構成比가 1955年에 7.8%였던 것이 그후 계속해서 減少 내지는 停滯한 것을 보

면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産業別人口構成은 그 以前과 달리 상당히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즉 1次産業從事者數는 11,703人으로 전체의 21.4%, 2次産業은 3,979人으로 7.3%, 그리고 3次産業의 從事者數는 39,001人으로 71.3%가 되어 3次産業의 構成比가 현저히 高增하여 都市基盤의 要素中 濟州市는 2次産業보다는 절대적으로 3次産業에 의존한 都市化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同期間에 있어서 1次産業의 構成比는 年平均 1.7%씩 감소한 것으로 1955年－1970年 사이의 감소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그만큼 濟州市의 3次産業에 의한 都市化가 빨랐다. 이와함께 3次産業의 構成比가 급격한 增加로 나타나 年平均增加率은 12.3%이 된다. 이러한 1次産業從事者數의 急減과 3次産業從事者의 急增은 轉入人口의 非農業分野의 就業選擇續性에서 오는 이유와 또 하나는 기존 거주자의 就業對象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온 것이다.

한편 農家 및 非農家의 增減에서 産業別構成을 1961年 非農家가 6,056戶로 全體家口의 40.4%였는데 1970年에 이르면 15,395戶로 增加되어 61年에 비해 絶對的 增加에 있어서 154.2%가 增加하였지만 또한 相對的 增加로 64.7%가 되어 보다 都市的 性格이 强化되기 시작한다. 이에 반하여 農家數는 相對的 減少는 있다하더라도 絶對的 減少는 현저하지 않아 1961年에 비해 1970年의 農家數는 단지 482戶만이 감소하였고 이것은 期間에 6.0%만이 줄어든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70年에서 1980年까지 10年間의 추세를 보면 1980年의 非農家戶數가 32,368戶로 增加된 戶數는 16,973戶로 增加率로 봐서는 110.2%가 되는데 대해 農家戶數는 1,616 戶만 減少하고 이것을 率로 볼때는 19.2%가 감소한 것으로 된다. 여기서도 前期와 마찬가지로 農家의 絶對的 減少는 미약하고 대신에 非農家의 相對的 增加가 우세함속에 都市性格이 특징지워 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것은 濟州市의 地理的 面積보다 行政的 面積이 보다 넓기 때문에 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農家의 絶對的 減少率은 낮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V. 人口分布와 密度

都市內部에 있어서의 人口分布는 機能地域의 分化程度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都市發生段階에서는 都心部에 密集하고 주변부는 分散分布를 하여 疎住地域이 된다. 그리고 都市가 成長함에 따라서 求心的 人口集中現象은 극대화되고 이것은 재차 都市力이 충실함과 동시 分散化에 의해 都心은 空洞化하고 대신에 주변부로 人口가 移動하여 充塡하게 된다.

1960年 濟州市의 總人口數는 68,090人으로 이들 人口의 分布狀況을 보면 1徒1·2洞, 2徒1·2洞, 3徒1·2洞, 健入洞, 龍潭洞등의 8個洞으로 構成된 臨海中心洞에 전체 인구의 65.3%가 集中되어 있었고 다음에 禾北洞, 三陽洞, 外都洞, 梨湖洞, 道頭洞등의 臨海周邊洞에는 23.8%, 그리고 奉蓋洞, 我羅洞, 吾羅洞, 老衡洞, 蓮洞등으로 이루어진 內陸周邊洞은 10.7%의 人口가 居住하였다. 이것을 面積과 관련지워 비교하면 臨海中心洞은 그 面積이 전체의 7.4%에 지나지 않으면서 65.3%의

〈表 6〉 洞別 人口數 및 面積

洞別 / 面積 (㎢) / 年度別	臨海中心洞	臨海周邊洞	內陸周邊洞	濟 州 市
	18.97	32.96	202.04	253.97
1960	44,504	16,269	7,317	68,090
1970	75,645	17,652	13,159	106,456
1980	123,350	21,466	22,730	167,546
1983	135,989	22,354	30,175	188,518

資料：各年度 濟州市統計年報

〈表 7〉 洞別面積 및 人口分布比

( ) : 人口密度

洞別 / 面積比 / 年度別	臨海中心洞	臨海周邊洞	內陸周邊洞
	7.4	12.9	79.5
1960	65.3 % (2,346)	23.8 % (493)	10.7 % (36)
1970	71.0 % (3,987)	16.5 % (535)	12.3 % (65)
1980	73.6 % (6,502)	12.8 % (651)	13.5 % (112)
1983	72.1 % (7,168)	11.8 % (678)	16.0 % (149)

資料：各年度 濟州市統計年報

人口가 集中되어 결국 57.9%의 超過人口가 居住하고 있으며 臨海周邊洞은 12.9%의 面積에 23.9%의 人口分布比를 갖기 때문에 11% 정도가 超過되나 內陸周邊洞은 그 面積이 79.5%에 이르는 廣面積을 갖고 있으나 人口分布比는 10.7%에 지나지 않아서 人口疎住地域이 되고 있다. (表·6,7 參照).

이러한 人口分布로 인하여 人口密度도 臨海中心洞은 평방킬로미터當 2,346人을 나타내어 최다稠密度를 이루게 되는데 특히 1徒1·2洞은 表 7에서와 같이 전체인구의 16.6%가 거주하여 인구밀도는 4,933人이 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內陸周邊洞의 하나인 奉蓋洞의 人口分布比는 2.3%에 人口密度 33人으로 1徒1·2洞과는 극히 대조적이 된다.

특히 奉蓋洞을 포함한 모든 內陸周邊洞은 人口密度가 濟州市의 269/km^2를 밑돌아 人口疎住地域이 되나 臨海周邊洞은 濟州市의 平均人口密度를 넘은 493人/km^2으로 人口分布의 漸移地域이 되고 있다. 1960년에 있어서 人口密度上 市의 基準인 100人/km^2을 넘는 洞은 1徒1·2洞, 2徒1·2洞, 3徒 1·2洞, 健入洞, 龍潭洞 등의 臨海中心洞 모두가 해당되지만 그외로는 단지 臨海周邊洞中의 梨湖洞만이 이에 포함되고 그 나머지는 農村的 人口分布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0年에 이르러 人口分布는 그 內容에 있어서 1960年과 크게 다를바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臨海中心洞으로의 人口集中이 계속되어 市全體人口의 71.0%가 居住하게 되고 人口密度 또한 3,987人으로 1960年에 비해 보다 稠密化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城南의 2徒1·2洞은 가장 현저한 增加를 하여 1960年보다 4%의 增加를 보였지만 대신에 健入洞의 人口分布比는 10.2%로 1960년에 비해 0.7%가 減少하여 都心部에서 周邊部로 人口分散이 시작된다.

그동안 이러한 臨海中心洞으로의 人口集中은 周邊洞의 人口分布에 영향을 주어 臨海中心洞은 1960年에 市全體人口의 23.8%가 居住하던 것이 1970年에 와서는 16.5%로 내려갔고 반면에 內陸周邊洞은 10.7%에서 12.3%로 增加하였는데 이것은 相對的으로 人口의 集中分布에 의한 周邊洞의 人口分布數가 減少하기는 하였지만 絶對的으로는 分散에 의한 稠密化는 계속되었다는 뜻이다.

1980年에 와서 都心을 向한 人口의 集中分布는 絶頂에 달하여 臨海中心洞의 人口分布比는 73.6%로 높아지고 人口密度 또한 6,502人/km^2으로 1970年에 비해 倍增한다. 그중에서도 2도 1·2洞은 增加幅이 가장 커서 1960年에 비해 2.8%의 高增을 보이는데 健入洞만은 지속적인 減少傾向을 갖는다.

이러한 臨海中心洞으로의 人口集中은 여전히 臨海周邊洞으로 하여금 人口分布比를 낮추어 市全體人口의 12.8%에 지나지 않는 人口를 갖게 하였고 이와 달리 다소나마 內陸周邊洞은 1970年의 12.3%에서 13.5%의 人口分布를 보여 人口密度가 65人/km^2에서 112人/km^2으로 倍增하기도 한

〈表 8〉 洞別人口分布比 및 密度

洞別 / 年度	濟州市	一徒一, 二洞	三徒一, 二洞	三徒一, 二洞	健入洞	龍潭洞	禾北洞	三陽洞
1960	100.0 (2,691)	16.6 (4,933)	9.8 (1,028)	15.1 (5,727)	10.9 (2,986)	12.7 (1,743)	5.1 (423)	6.8 (490)
1970	100.0 (4,207)	17.0 (7,905)	13.8 (2,275)	15.7 (9,297)	10.2 (4,369)	14.1 (3,002)	3.6 (470)	5.1 (576)
1980	100.0 (6,622)	17.4 (12,698)	16.6 (4,287)	15.3 (14,292)	8.1 (5,463)	16.0 (5,379)	3.1 (639)	3.7 (654)
1983	100.0 (7,451)	15.7 (12,925)	16.2 (4,702)	16.6 (17,436)	7.5 (5,673)	15.9 (6,025)	2.9 (672)	3.5 (704)

資料：各年度 濟州市統計年報

洞別 / 年度	奉蓋洞	我羅洞	吾羅洞	老衡洞	外都洞	梨湖洞	道頭洞	蓮 洞
1960	2.3 (33)	2.9 (28)	4.0 (67)	2.3 (35)	3.9 (302)	3.7 (1,029)	3.7 (677)	
1970	2.3 (51)	3.6 (48)	3.8 (100)	3.3 (79)	2.7 (330)	2.3 (1,002)	2.6 (753)	
1980	1.7 (60)	3.3 (81)	2.4 (141)	2.1 (81)	2.6 (498)	1.3 (895)	1.9 (872)	3.8 (492)
1983	1.5 (61)	3.3 (91)	2.7 (177)	2.5 (107)	2.4 (521)	1.2 (936)	1.6 (829)	5.7 (830)

다. 따라서 1980年以前의 人口疎住地域이었던 內陸周邊洞은 人口密度上 漸移地域으로 浮上하고 漸移地域이었던 臨海周邊洞은 疎住地域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특히 臨海周邊洞中의 道頭洞과 梨湖洞의 人口分布比가 前期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은 城西部에 자리한 濟州國際空港의 擴張建設로 因한 移住民이 많았던데 기인하고 또한 內陸周邊洞에 있어서 人口分布比의 增加는 吾羅洞에서 分離된 蓮洞地區에 새로운 新濟州都市建設에 의한 人口增加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980年이후부터 臨海中心洞의 人口集中化는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表.7에서와 같이 1983年의 臨海中心洞 人口分布比는 72.1%로 1980年의 73.6%보다 1.5%나 낮아졌다. 특히 臨海中心洞중에서 1960年이래 지속적으로 人口分布比의 增加를 보여왔던 2徒1·2洞은 물론 都心部中에서의 核心洞은 1徒1·2洞도 현저히 저하하였으며 그 정도에서는 다소라도 健入洞, 龍潭洞 등도 減少하였는바 단지 3徒1·2洞만이 微增한다(表 8 參照).

한편 內陸周邊洞은 1980年 이후 계속적인 인구의 增加를 보여 人口分布比는 1980년에 비해 2.5%가 높은 16.0%가 되었고 이중에 1979年에 分洞된 蓮洞은 新設된 洞임에도 불구하고 人口分布比가 5.7%로서 臨海中心洞을 제외해서는 최대 人口分布地가 되고 있다. 그러나 蓮洞외의 모든 內陸周邊洞은 1980年을 기준하여 그 以前까지 減少하던 人口가 그후 계속적인 增加를 하였다 하더라도 農村的 要素가 많은 관계로 微增勢를 보일따름이다. 여기에 1980年이후 人口疎住地域이 되어버린 臨海周邊洞은 모든 洞에서 人口分布比가 낮아지고 있다.

1983年 現在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市가 되는 要件인 人口密度 1,000人/km^2을 기준한다면 濟州市의 18個 行政洞에서 都市的 洞은 臨海中心洞만이고 나머지 臨海周邊洞과 蓮洞을 제외한 內陸周邊洞 모두는 農村的 性格을 면치 못하고 있다.

Ⅵ. 結　　論

濟州市의 人口成長은 우리나라의 다른 地方中少都市들과 相異한 過程을 갖는데 특히 出產붐에 의한 自然增加의 急增은 全國이 1950年代 中半以後에 이루어졌는데 濟州市는 그보다 10年이 늦은 1960年代 中半以後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6·25動亂과 四·三事件에 희생된 本市의 年齡層이 他地域에 비해 보다 年少하였다는 데에서 온것이다.

다음에 濟州市는 1960年代 이후 非工業都市임에도 불구하고 觀光機能의 增大에 따른 人口吸引力의 發生과 아울러 高率의 出生者殘存이 이루어져 人口增加가 부단히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人口增大要因은 傳統的으로 濟州가 女超地域이기는 하지만 1960年以前의 경우는 1次產業의 水產活動과 혹은 다른 社會的 原因에서 왔었으나 그후로는 觀光消費都市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都市 經濟的 原因으로 本市로 하여금 女超地域이 되게했다. 따라서 과거의 市機能은 단지 鄕都라는 單一的 機能만이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觀都라는 機能까지 겸하게 되어 就業人口의 대부분이 3次產業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것은 都市發展의 일반적 段階인 1次產業에서 2次產業을 경유하여야 함에도 바로 3次產

業으로 돌입한 결과가 되어 畸行的인 發展을 하게 되어버려 이것이 금후의 濟州市가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여야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人口分布의 集中과 分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일까지도 濟州市에 있어서는 都心部에 人口가 充塡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나 또한 市街地의 連擔化의 狀態로 보아서나 濟州市는 100萬都市와 같은 大都市의 開發手法 내지는 技法을 그대로 적용하여 飛地的 都市化를 피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土地利用計劃에 있어서나 기타 都市計劃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施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人口의 配置計劃이 요망되고 있다.

Summary

A Study on the Growth of Population of Cheju City

Song Sung-dae

The population of Cheju city have grewn after 8.15 Liberation, although the industrial(manufacturing) functions are weak differently form the other local cities. The reason is enlargement of tourist function. Also that get the population growing is accomplished not only by natural increase but by social increase.

Since the middle of 1960's, the Baby Boom of Cheju city had appeared ten years later than that of Korea, because both Korean War and 4·3 affair in Cheju was resulted in the victim numerous infants and adolescents.

Also, as Cheju is tourist city for consuming, regional charateristic of industrial composition is that most (71.3) of employed person engage in tertiary sector and such is Cheju's industrial composition that sex composition is a surplus of females.

Seeing distribution of population, more than 70 percent of the Cheju's population live in seaside central district (1Do-1dong, 1Do-2dong, 2Do-1dong, 2Do-2dong, 3Do-1dong, 3Do-2dong, Yondam-dong, Konip-dong), the others are scattered wide.